

제322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2월26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4시31분 개의)

○위원장 주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특위 활동을 종결하는 회의로 별도의 의사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소회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이 우리 특위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발언 순서 없이 자유롭게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 원래 국회라는 공간이 서로 말해야 하는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인데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야 특위 위원님들은 할 말을 잃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잘하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누구나 다 출발합니다. 노력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세상일이고 또 정치 영역이라 익히 경험했습니다만 이

번 정개특위처럼 제대로 논의조차도 해 보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온 국회 활동도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어떤 결정을 내려 놓고, 특위 위원들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위임해 주지 않은 그런 특위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또 억울함을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특히 19대 들어와서는 상당히 여야가 서로 간에 경쟁하고 다투면서도 합의 처리한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적으로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는 여야의 기대 또 국민들의 요구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한 활동으로 마무리를 짓게 돼서 심각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야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펼쳐 보이고 그리고 또 선택을 받아서 세상을 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의 굉장히 중요한 시대정신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 복지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대선이었고 어떻게 보면 역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정책과 정책이, 공약과 공약이 경쟁한 첫 번째 선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정치공약으로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출발은 정략적인 또는 선거의 득을 따진 공약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승자와 패자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사실은 승리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승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패자였던 민주당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곤혹스러운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 당원 투표로 기초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야가 뒤바뀌어서 충분히 기초공천 폐지를 할 만한 정도의 정치적인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당은 그걸 번복해 버리고 파기하고 오히려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야당은 주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가치관에 혼동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내는 공약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극심한 정치 불신을 낳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 여야가 공통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마지막이라도 보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호영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웅래 위원님!

○노웅래 위원 저희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 관련해서 충분히, 아마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10배, 20배를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은 여당에서, 아니, 대선 공약을 직접 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이거는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신뢰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하여튼 뭔가 달라져서 못 한다고 그런다면 안 된다는 이

유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조차 없이 국회라는 게 이렇게 무력하게 부끄럽게 끝맺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견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정개특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국민 약속을 했고 대선 공약을 양당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국회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다는 것이 더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대선 공약을 했으면서도 위헌 논란까지 제기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여야 그냥 당리당락 논쟁처럼 이게 되는 걸 보면서도 정말 정치 이전에 이견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우리의 정치의 한계고 우리 국회의 한계라고 그런다면, 그리고 소수당의 한계라고 그런다면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약속하고 언제 있었냐는 듯 없다는 듯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돼서 마치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힘의 논리로 물리력으로, 일종의 폭력으로 어떠한 결정이 강압적으로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런다면 과연 국회의 존립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정치가 존립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정말 아파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이제 출범 1주년 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속시원히는 아니더라도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노근 위원님!

○이노근 위원 지금까지 여야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13개 법안이, 주요 항목으로 치면 13개 항목에 일단은 진전은 보인 것 같습니다.

이 정개특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웅래 위원님이나 김성주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치열한 격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정치 공세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새누리당은 이것을 통해서 경선문화로 이제 공천제도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 하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는 얻어 냈다 그렇게 봅니다.

또 법률 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품수수나 비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엄청난 아주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끌어 냈고 특히 공무원의 줄서기 현상 이런 현상도 이제 상당히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자치단체장 선거가 돌아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이것을 알면 상당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하자 문제를 국민한테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예 공개하도록 이런 것까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런 대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부족한 것은 또 다른 계기가 있을 때 더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하고 좀 더 발전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선거공약을 할 때에는 진지한 검토와 그것이 물고 올 파장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 뭐 이 당이 정하니까 저 당도 정하고 뭐 서로 이렇게 따라오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것의 실천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 분야뿐만 아니라 예산조차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것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을 앞으로 교훈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도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호영**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 우리 정개특위가 아마 오늘로써 실질적으로다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 원하는 그런 결과는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조금 전에 이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서 여러 가지 큰일들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천제 폐지나 유지나 의 빛에 가려서 실질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계시지만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데 그런 상향식 공천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통과를 시킨 상태입니다. 다만 상향식 공천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저로서는 어제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이루어 내야 되는데 또 특수지역에는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 때문에 일부나마 우선공천이라는 그런 통로를 어쩔 수 없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일편 이해는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거쳐서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로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당 권력자들의 전횡을 막는 데는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록 공천제 폐지와 유지라는 그런 소위 워딩 자체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공약 안에 담긴 뜻은 충분히 이번에 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요구했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라든가 아니면 교육감 임명제로의 전환 그리고 선출직 단체장의 3선 연임을 두 번으로 줄이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방의회를 현재 중층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단층구조로 바꾸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또 민주당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결실을 못 보게 된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개특위를 통해서 6·4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게 됐고 그리고 로또교육감이라 불리는 그런 소위 기호에 따라서 당락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을 해결하는 투표용지의 변경을 저희가 이번에 이루어 냈다는 것도 저희 정개특위의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못 해냈던 부분들은 앞으로 다음 정개특위에서 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바르게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촉박했던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점은 우리 국회 운영과정에서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선거도 미리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 있는 여야 간의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가져 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우리 주호영 위원장님, 백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정치를 국회에 와서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0여 년 가깝게 시의원, 광역의원, 시장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번 정개특위 활동한 만큼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활동을 느껴 본 게 참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아쉽고 국민께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미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이제 이틀 남았지만 사실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제가 1주년 됐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사실상 2월의 정개특위는 식물특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공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거대여당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치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지만 본인이 대선 당시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초선거 공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해명, 설명이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좀 밝히고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항, 그 절차는 꼭 이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후보 시절에 정치개혁의 첫 과제라며 거듭 약속했던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은 오불관언(吾不關焉), 마치 남의 일인냥 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은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에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상임, 전국 위원회를 잇달아 소집해서 당시 내세웠던 기초선

거 공천 공약을 폐기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6·4 지방선거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야당은 선거에 많이 불리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며 공약 파기를 선언한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야당이 무공천을 선언하고 새누리당이 폐지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천을 포기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의원 후보들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야 합니다.

투표지 2번 란은 빈 칸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연히 야당은 선거에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면죄부를 얻었다는 식으로 또다시 국민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약 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계기를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또 얘기할 것입니다.

참으로 선거를 치르는 물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후보들끼리 약속했던 사항인 만큼 못 하면 못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후보들이, 그 당시 공약을 했던 분들의 설명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더라면 우리 특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와, 그러면 그것대로 양당이 합의해 주고 그에 대한 것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른 내용으로라도 채워 갔을 텐데 오직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아무것도 고쳐 내지 못하고……

특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일,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일 등등 지금 논의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여성의 비례라든가 여성을, 소수자를 배려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답을 수 있는 틀이 있는데 큰 틀이라는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못해서 여타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 정개특위에서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아쉬움과 여러 느끼는 소회가 너무나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정개특위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함께 고민하고 고생했던 우리 특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학용 간사님 위로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호영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후보자 전과기록 공개 범위의 확대, 공무원 선거범죄 및 선거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교육감 투표용지 개선 등 열네 가지 사항에 관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가 다소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물을 정하는 특위가 예비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불과 두 달 전에서야 구성이 되어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기에 정개특위를 가동하여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일 수개월 전에는 선거제도가 확정되어 국민이나 출마에 뜻을 둔 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특위 논의사항 밖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올해에 선거가 세 차례나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선거 과잉으로 인한 국력 소모와 국민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말도 없이 불철주야 특위 활동에 진력을 다해 주신 백재현 간사님, 김학용 간사님 두 분 간사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특위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회의 직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오늘 출석해 주신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서남수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

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6·4 지방동시선거의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대 국회 제2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성주	김학용	김희정	노웅래
도종환	박대동	백재현	성완종
이노근	주호영		

○청가 위원(1인)

남인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이창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장관	서남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문상부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14. 2. 19 김성주·은수미·한정애·이원욱·박수현·배재정·윤후덕·윤관석·이목희·도종환·이학영·최동익 의원 발의)

2월 20일 회부됨